

EU-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직물 수출기업 안내

유럽연합(EU)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(EV FTA)이 오는 8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.

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(fabrics)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,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되므로,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입니다.

<『EU-베트남 FTA』 원산지 '누적기준' 활용도>



원산지 누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-EU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*과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* 직물의 원산지는 한-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직물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으로 결정

한-EU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 인증수출자*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EV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
*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
이에 관세청에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

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본사 및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, 세관에서는 인증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, 관련 물품의 심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·정확한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, 한-EU FTA에 따른 직물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

세관	연락처
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32-452-3634
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2-510-1384
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1-620-6958
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53-230-5183
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	062-975-8193
평택세관 통관지원과	031-8504-7042